



국어교육진흥정책 대토론회

### 국어교육정책 대토론회

國語教育月報 창간기념 국어교육진흥정책 대토론회=7월13일 문예진흥원. 「국어과 교육과정의 분석」(최현섭·인천교육대)/「국어과 교과서의 편찬」(남광우·인하대)/「국어과 학습지도와 평가」(노명완·한국교육개발원)/「국어과 학습자료의 개발」(박봉배·서울교육대) 南廣祐교수의 현행 국민학교「바른생활」교과서(1·2학년) 분석에 의하면 첫 단원 「과란 하늘」의 경우, 태극기·애국가·무궁화 등이 나오는 것은 「도덕·사회」과목과의 통합교과서라는 성격상 이해는 되지만, 문자지도면에서 절대 불가라고 말한다. 또한 현행교과서가 통합교과서라는 기본성격상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일본어·영어교과서가 외견상 문장으로 시작된 것을 모방해온 타성인지 모르나 문장으로 시작한 것은 잘못이라 본다. 우리말은 많은 음절문자를 가지고 있고 현행 맞춤법이 지나친 表意化로 받침이 많아진 점 등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

는 주장이다. 南교수는 교과서편찬의 개선책으로 평소의 지론인 한자교육 부활을 주장하는 한편, 문자교육의 측면에서 48년 이래 문교부가 고수해온 文章式을 지양할 것을 지적했다. 또 새 교과서 편찬시, 개화기 국어교과서·조선어학회가 지은 국어책(45년)·영어 및 일본어교과서 등을 참조할 것을 권고했다.

高永根교수(서울대)는 토론에서 한글전용과 국·한자혼용은 서로 상극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충의 관계라고 주장했다. 한글전용이 궁극적으로 한자어의 우리말 바꾸기를 전제하는 것이라면, 효율적인 한글전용을 위해서도 한자·한문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 국민학교 4학년부 1년에 100자씩 단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한다. 또한 그는 국어교과서에 각 지역의 고장말이 반영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이는 지역별 검인제도의 도입을 전제한다고. (자료집 B5 124면)

### 演劇評協 심포지엄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제1회 심포지엄=7월10~11일 아카데미하우스. 주제: 좋은 비평이란 무엇인가 「비평논쟁의 사례」(韓相喆)/「신문의 연극평」(구허서) 구허서씨는 70년대 이후 신문의 공연예술분야 지면을 분석, 신문비평이 지닌 문제를 「일관성의 결여」라 지적했다. 한 사람이 쓰든, 여러 사람이 각각의 의견을 내놓든 간에

「지속적인 대화의 광장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 신문이 이런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장치를 겁내거나 거북해 하고 회피하는 것은 자체내에 전문적 인력 양성이 소홀하고 외부 필자에 대한 불신이 작용한 탓이라고 그는 꼬집었다. 그러나 앞으로 신문지면이 증면된다면 이는 연극비평에 바람직한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자료 B5 8면)

### 歷史問題研究所 윌레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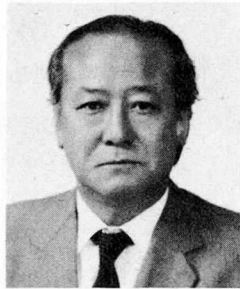
역사문제연구소 윌레발표회=7월11일 동연연구소. 「일제하 식민지 국가권력의 성격 연구」(박찬표·고려대 정의과 대학원)/「식민지시대 계급구조 연구」(백옥인·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

박찬표씨는 조선총독부 재정분석, 특히 총독부 세입의 주된 구성부분인 조세와 公債를 분석함으로써 식민지 국가권력의 성격 규명을 시도했다. 차씨는 기존의 식민지권력 연구가 「민족수탈기관」이라는 규정에 머물러 왔다고 비판하면서, 이 연구가 단순한 지배정책사로 축소되어서는 안되며 제국주의 지배의 본질적 성격, 즉 생산관계적 규정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료 B5 16면)

### 半自動번역 실현가능성

方坤교수(경희대·한국번역가협회 이사장·사진)가 국제번역가연맹(FIT/유네스코) 총회및 제11차 세계번역가대회(8월20~27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市) 참가차 8월 중순 출국한다. 方교수는 번역가대회 제2분과에서 「문학번역의 장래와 기계번역-반자동 번역에 관하여」를 주제발표할 예정.

그는 기계번역의 성과가 문학작품의 번역에 도입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방면의 연구는 4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돼 80년대에 들어와서는 EC·일본도 본격 참여, 부분적으로 이미 기계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태. 그러



方坤교수

나 자동번역에 따르는 여러 장애요인도 만만치 않다. 즉 자연언어와 인공언어, 또 인공언어의 코드化轉位를 통한 목표언어의 획득이라든가 번역용 사전의 편찬문제 등이 그것. 그 가운데 컴퓨터번역을 위한 「중간언어 창조」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方교수는 지적한다. 이는 多言語간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언어인데 최근 에스페란토語 또는 그것에 손질한 것을 중간언어로 채택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方교수는 중간언어의 매개에 의한 기계번역이 급세기말 이내에 실현되지 않을까

낙관하면서 이 경우의 기계번역을 「반자동번역」이라 명명하고 있다.

### 地理學강좌

대우재단 연속강좌=7월18일 동강연실.

「전통지리사상과 都城계획」(형기주·동국대 지리교육과)

형교수는 한국 都城문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개괄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중국의 도성문화를 수용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漢·南北朝·唐에 걸친 장기간의 이질문화를 동일한 도성에서 오래도록 수용하되 지형의 특색과 풍수사상에 따라 고유의 山城과 宮城의 컴비네이션 플랜을 이룬다. 격식이나 이념 못지 않게 방어·경제활동의 기능이 중요시되었고 동일 都城에서 긴 세월을 걸친 이질문화를 地層처럼 누적하였기에 도성의 윤곽이나 각종 기능의 배치 및 條坊분할이 수미일관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자료 A5 4면)

한편 6월27일 있었던 강좌 「풍수사상과 村落의 立地」에서 崔昌祚교수(전북대)는 한국의 전통촌락에 밀려닥친 근대화 바람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낳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변화로써 촌락의 기능성은 많이 좋아졌지만, 계량화된 성과로 표현될 수 없는 많은 측면들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마을 앞에 있던 案山을 헐어내고 마을 안길을 간선도로와 직선 연결시키는 경우, 교통은 약간 개선될지 모르나 주민들의 심리상태나 마을입지의 안정감 등은 무시된다는 것. 『이처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리학·건축학·역사학 등에서 부분적으로 밖에 연구되지 못하고 있음은 아쉬운 일』이라고 강연자는 지적한다.

### 兒童文學 세미나

한국현대아동문학가협회(회장 李在徹)주최 제9회 현대아동문학세미나=8월8~9일 남원市 명지호텔.

주제:오늘의 아동문학, 그 주변의 진단

발제:「상업주의시대의 아동문학」(曹大鉉·동화작가)

제1주제:「아동도서 개발현황」(金京中·전주 우석대)

제2주제:「아동잡지와 교육성」(宣勇·「어린이 문예」主幹)

제3주제:「TV아동프로그램의 진단」(鄭斗理·동시인)

제4주제:「아동의 독서실태와 부모역할」(姜賢鎬·동시인)



「現代兒童文學」誌 3호에 발표된 발제강연문에서 曹大鉉씨는 상업주의 풍조에 물든 아동도서 출판의 현황을 비판한 뒤 그 대안으로서 「新童心主義의 창출」을 역설했다.

80년대 초부터 밀려닥친 상업주의 사회풍조가 성인독서계에 「출세지향적인 兵法類의 유행」을 몰아왔고, 이는 아동물에도 파급돼 「어린이 손자병법」 「어린이 탈무드」 등이 속출하고 「천자문」 「명심보감」 등 동양고전의 해설서 단계를 거쳐 최근의 명랑소설부까지 낳았다는 것이 그의 진단. 장사 잘되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명랑소설에 즐겨 영합하는 오늘의 作壇풍조를 탈피하려면 우선 아동문학가들의 자기비판이 선결돼야 한다고 曹씨는 강조한다. 새로 창출되는 새 아동문학관을 그는 「新동심주의」라 명명하면서 그 실마리를 「아동의 입장」에서 찾았다. 더이상 어른이 아이에게 주는 형식으로 씌어진 문학이 대신 안된다는 것이다. 曹씨는 새 문학관의 範例를 창작의 실제와 관련, 네가지로 꼽고 있다. 첫째 순종형이 아니라 개성적인 兒童像의 창조. 둘째 주제면에서 권선징악의 유교적 가치관을 탈피해 민주시민의 이념을 제시할 것. 셋째 작품의 줄거리 구성은 입체적이고 사건중심적이어야 한다. 넷째 문체는 아동문학 특유의 단순명쾌함을 유지하되, 내용설명이 아닌 장면 묘사나 상황의 敘事문체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 등이다.

**필리핀의 민중의 외침, 성직자들의 외침을 들어라!**

**필리핀의 민중과 해방신학** 민중이 어찌해방신학을 선택하느냐를 알려주는 박진감 넘치는 화제의 현장 리포트! ■신국판 205면/값 2,800원

루벤 아피도·아마다 케이조 편  
소 룬 옮김

**이멜다 마르코스** 카르멘 나바로 페드로사  
소 룬 옮김

■신국판 280면/값 2,800원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52 동서출판 **日新社**  
738-9005, 737-6980